

꼭꼭는 어와나

대덕한빛교회 선주형, 선주찬

초등학교 4학년인 주형이가 어와나(Awana)에 입단한 것은 1학년 때였다. 그리고 둘째 주찬이는 일곱살때부터 불티단에 입단하여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으로 불티단에서는 말형이 되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주찬이는 오후에 있는 불티단에, 주형이는 저녁때 하는 T&T를 가느라 둘 다 다른날보다 바쁘게 보내지만 늘 빠지지 않고 나간다.

어와나(Awana)에 보내기 전에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집에서 엄마의 힘만으로 말씀을 보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와나(Awana)가 시작된지 조금 지나서 아는 엄마의 권유로 입단시키고서도, 한동안은 어와나(Awana)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서 자주 암송을 시키지는 않았다.

어와나(Awana)에 보낸 뒤 일년이 지나서 엄마인 나도 불티단 교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BT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말씀 암송은 어와나(Awana)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해야하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 뒤로 되도록 매일 아이들이 말씀을 조금씩 암송하거나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잠자기 전에 이불을 깔고 아이들과 누워서 핸드북을 읽고 암송도 해보도록 하였다. 이렇게 매일 외우다보니 아이들도 즐겁게 암송하였고, 어와나(Awana)도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매일 짧게나마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 같았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주형이는 불티단에서 클라임을 마치고 완성상을 받을 수 있었다. 주형이는 클라임 완성상을 받았다는 것을 무척 기뻐했다. 지금은 T&T에서 배우는 핸드북이 불티단때 보다 어렵지만 꾸준히 하는 모습이 기록하고, 주찬이도 지금은 열심히 클라임 단계를 하고 있다. 요즘은 엄마가 자주 암송을 도와주지 못해도 주찬이는 스스로 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절제와 배려하는 마음, 협동심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이들은 둘 다 게임을 무척 좋아한다. 게임시간에 아이들이 활기차게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힘이 나는 것 같다. 어와나(Awana) 소풍때는 가까운 산으로 나가 팀원들,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얼마전 주형이는 학교에서 성실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모범이 된다는 내용의 표창장을 받아와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였다.

아이들이 어와나(Awana)에 입단한지도 4년째가 된다. 앞으로도 주형이와 주찬이가 어와나(Awana)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 늘 하나님의 사랑안에 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길 기도한다.



Ja-hee, Choi, mother of Joo-hyong, Suh and Joo-chan, Suh

It was at the first grade when Joo-hyong joined Awana. Now he is in the fourth grade. My second son, Joo-chan joined Sparks when he was 7 years old. Now he is the second grader, an elder in Sparks. Every Friday Joo-chan hurries to Sparks in the afternoon, and Joo-hyong to T&T in the evening. On Friday they are busier than other day but never skip Awana.

Before sending them to Awana, knowing it was important, I found it difficult to teach my children God's Words at home for myself. Not long after my church started Awana, I was advised to send my children to Awana from an acquaintance. After my kids attending Awana, I didn't help them memorize the Words at home with the excuse that I didn't know much about Awana or I was busy.

After a year, I joined Awana as a Sparks leader. When receiving BT, I realized that clubbers should memorize the Words at home as well as at Awana meeting and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give children the training for belief at home. After that I helped my children read or memorize the Words everyday. Lying on the bed, we read the handbook and tried to memorize the Words together. Day by day, the kids became to enjoy memorizing and have fun with Awana. They seemed to be happy to see a few Words everyday.

The effort was not in vain. Joo-hyong finished Climber course of Sparks and was awarded the Spark Award, which pleased him very much. Now he is doing hard with the T&T handbook though it is more difficult. Joo-chan is also working hard with Climber course. I feel proud of him trying to memorize the Words for himself without my help.

I think my kids will learn from Awana games obeying rules, taking care of others and cooperating with others. Both of them love games very much. Seeing them play games with life and energy, I regain strength, too.

Going on a picnic with Awana members, we have fun looking around the nature God created, enjoying food on a nearby mountain. A few days ago, my husband and I was pleased that Joo-hyong was given a citation for his honest behavior and careful consideration towards others at school.

It has been 4 years since my sons started Awana. I pray for them to be trained to live in God's love and grow up to be approved workmen for God through Awana.

